

# 부케 대신 '연등' 든 신랑·신부 부처님 앞에서 '백년해로' 다짐

마인드디자인, 구랍 19일 서울 불광사에서 '사찰 혼례'

"사찰 혼례? 상상했던 거와 다르네요!"  
구랍 19일 토요일 오후, 사찰 혼례에 참석기 위해 서울 불광사를 찾은 하객들은 신기한 듯 여기저기 두리번대며 식장을 구경하느라 연신 분주했다. 절에서 결혼한다는 소식에 '전통 혼례'를 상상했지만, 그와는 또 다른 예식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황금빛 불상 앞으로 새하얀 '버진로드'가 펼쳐졌다. 그 옆으로 꽃과 향초가 길을 밝혔고, 화려한 상들리에 조명 대신 은은한 연등 조명이 식장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한편에는 오케스트라단과 한복 입은 합창단이 오묘한 조화를 이뤘다.

똑같은 예식, 부주한 분위기의 요즘 결혼식 문화에서 벗어나고자 마련된 '사찰 혼례' 현장이다. 사찰서 종종 치르던 결혼식처럼 장소만 사찰이 아닌, 사찰 전통 혼례의식에 현대적 의식도 결합해 이색적 풍경을 연출했다. 잔치 음식도 사찰 음식으로 꾸려졌다.  
구랍 19일 서울 송파구 불광사서 '사찰 혼례'가 진행됐다. 불교계 사회적기업 (주)마인드디자인(사단법인 우리는선우)은 근대에 사라진 사찰 혼례의식을 정립·보급함으로써 현대의 획일화된 결혼식서 탈피, '대안 결혼식'의 일환으로 사찰 혼례를 알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총괄·기획했다.  
오전 11시 30분이 되자 예식을 알리는 타종 소리가 울려 퍼지고, 양가 부모님은 불단과 주례단에 초를 밝혔다. 이어 불광사 합창단 7명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다는 신랑신부의 마음을 담아 부처님 전에 삼법공양을 올렸다. 향, 등, 꽃이 차례로 불단에 놓이자 하객들은 합창으로 신랑신부의 앞날을 위해 기도했다.

다음으로 동자(童子)·동녀(童女)의 도량결계가 펼쳐졌다. 물이 담긴 발우를 든 동자는 소나무 가지를 물에 담갔다가 좌우로 뿌리며 도량을 정정히 했고, 동녀는 꽃잎을 뿌리며 신랑신부를 위한 꽃길을 만들었다. 수줍어하는 동자동녀의 모습에 엄숙했던 분위기도 점차 편안해졌다.  
그 위로 서양식 웨딩드레스 대신 웨딩한복을 곁들여 차려입은 신랑신부가 걸어 들어왔다. 이에 주례 법사를 맡은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은 화혼예식을 부처님께 고하고 축복을 발원하는 고유문을 봉독했다.  
지홍 스님은 "하늘에 달이 밝고 땅 위에 물이 맑으면 물 있는 곳마다 달이 비추듯이, 우리의 마음이 맑으면 부처님은 언제나 함께 계신다고 하셨습니다"면서 "오늘 진정한 몸과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선 신랑신부가 깊은 사랑과 끝없는 원력으로 부부되길 부처님 전에 서원하오니 위없는 자비광명을 드리워 증명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원했다.  
또한 스님은 주례사를 통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화내지 말고, 서로 존중하고 인내하며 화합해야 한다"며 "인내는 삶의 장애를 극복하는 활로다. 양측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들과 화목하게 지내며 행복한 결혼생활을 가꿔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사찰 혼례의식의 하이라이트는 신랑신부의 '헌화 의식'이었다. 예쁘게 꾸며진 웨딩부케 대신 '칠경화'라 불리는 7송이 꽃을 들었던 신부는 그 중 5송이를 신랑에게 건네고 신랑은 이를 주례 법사에게 전했다. 지홍 스님은 신랑이 건넨 꽃을 불단 동쪽에 올린 후, 신부의 2송이 꽃을 마저 받아들이고 불단 서쪽에 올렸다.

**불상 앞 꽃길 버진로드 펼쳐져 '장판'**  
**삼법공양·고유문 낭독·헌화 의식 등**  
**마인드디자인, 사찰 전통혼례의식 구현**  
**성훈선언·축가 등 현대적 문화도 결합**  
**최근 유행한 '대안결혼식 될까' 기대**

마인드디자인은 '헌화 의식'에 대해 "석가모니 부처님이 전생에 '선혜'란 수행자로 살 때 연등 부처님에게 공양할 꽃을 구하던 중에 '구리'란 궁녀에게서 7송이 꽃을 구했다는 설에서 유래한다"며 "이는 세 세생생 아름다운 인연을 서원한다는 의미를 담은 의식이다. 사찰 혼례의 꽃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혜 보살과 구리 궁녀는 이 인연으로 내생에 부부가 될 인연을 맺게 됐다.  
이어서 혼인 서약, 예물 교환, 성훈 선언, 축가 등 현대 결혼식의 의례도 진행됐다. 사찰 혼례가 일반화·대중화될 수 있도록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현대적 시의성에 맞춰 일반 결혼식 식순을 포함한 것이다. 축가는 불광사 합창단, '오늘의 라디오' 가수 장준호, 마인드디자인 팀과 신랑의 깜짝 이벤트 등이 마련됐다.  
이날의 주인공인 신랑 오태식(34) 씨와 신부 김민지(32) 씨는 "결혼식이 단순히 지인들에게 축하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모님과 사회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면서 "종교를 떠나 경건하고 특별한 분위기에서 결혼하게 돼 기쁘다. 또한 이런 뜻 깊은 불교 화혼예식을 알리게 돼 뿌듯하다"고 행복한 웃음을 보였다.  
하객들은 이색적인 사찰 혼례의식에 흥미로워했다. 신부의 친구 진아연(여·30)씨는 "사찰에서 결혼하기에 간소하고 조용한 결혼식을 생각했는데 고전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이 잘 어우러져 너무 새로웠다"면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사찰 혼례의식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진아연(여·56)씨도 "성당이나 교회에서 결혼하는 경우는 많은데 언제부턴가 사찰 혼례가 없어져서 아쉬웠다"면서 "자녀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자녀들과 상의해 사찰 혼례도 고려해볼 계획"이라 전했다.

모든 식순이 끝나고 신랑신부는 초록빛 연등과 분홍빛 연등을 양 손에 받들고 경건히 퇴장했다. 신랑신부가 함께 연등에 붉을 밝히는 것은 불교의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이란 뜻으로 '먼저 나의 깨달음을 얻고 세상에 보탬이 되는 삶을 살겠다'는 의미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천년가약을 맹세하고, 연등처럼 환한 얼굴로 걸어 나오는 신랑신부의 모습에 하객들은 큰 박수로 축복했다.

한편, '사찰 혼례'는 부모님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고이 성장한 선남선녀(善男善女)가 그 사랑과 사회의 은혜에 감사하며, 부처님 앞에서 백년가약(百年佳約)을 맺는 예식이다. 마인드디자인은 예부터 재래사에서 진행된 사찰혼례를 재조명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와 관련 마인드디자인은 한국 불교의례 교과서로 일컬어지는 <석문의범(釋門儀範, 1935년 간행)>을 바탕으로 '사찰 혼례의식'을 정립했다. 남양주 봉선사 월운 스님과 고산 스님이 의식 고증을 맡았고, 혜거 스님과 흥윤식 교수가 의식 감수를, 정승연 다례원장이 의식 정립에 참여했다.  
마인드디자인 측은 "예식장에서 30분에 한 커플씩 짝지어주는 듯한 획일화된 결혼식,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혼식에서 벗어나 '사찰 혼례'를 통해 결혼의 진정한 의미를 되살리고자 한다"면서 "청년 불자들에게 화혼예식의 의미를 알리고, 교회와 성당처럼 사찰 결혼식도 일반화될 수 있도록 널리 보급할 계획"이라 다짐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12월 19일 (주)마인드디자인(사단법인 우리는선우)은 서울 송파구 불광사서 '사찰 혼례'를 진행했다. 신랑 오태식(사진 오른쪽) 씨와 신부 김민지 씨 모습.



불상 앞에 펼쳐진 버진로드가 대중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다는 신랑신부의 마음을 담아 부처님 전에 삼법공양을 올리는 불광사 합창단 모습.

### 전통 '사찰혼례' 식순

- |             |   |                  |
|-------------|---|------------------|
| 1. 개 식      | 예식거행을 알리는 타종.                                     | 세생생 아름다운 인연을 서원. |
| 2. 상단정화     | 양가부모님이 불단과 주례단에 촛불 점화.                            | 12. 혼인선서         |
| 3. 삼법공양     | 향, 등, 꽃을 부처님께 공양.                                 | 13. 성훈선언         |
| 4. 주례법사     | 동자가 향수를 뿌리고, 동녀가 꽃잎을 뿌리며 입장. 도량을 정정히 하고, 아름답게 장엄. | 14. 신랑신부 불전대례    |
| 5. 도량결계     | 신부가 칠경화(7송이 꽃)를 들고 입장.                            | 15. 발원문 봉독       |
| 6. 신랑입장     | 신부법사가 성스러운 화혼예식을 부처님께 고하고 축복을 발원.                 | 16. 주례사          |
| 7. 신부입장     |   | 17. 축가, 축시 낭송    |
| 8. 삼귀의례     |   | 18. 신랑신부 연등부축    |
| 9. 고유문 봉독   |   | 19. 사홍서문         |
| 10. 상건례     |   | 20. 신랑신부 인사      |
| 11. 신랑신부 헌화 | 신부가 5송이 꽃을 신랑에게 주고, 신랑과 함께 부처님 전에 꽃을 올리며 세        | 21. 행진           |

## 우주적 진리의 신불교 영산불교 현지사

초대 교조 광명만덕 큰스님  
제2대교조 자재만현 큰스님

장로원 의장    현 각  
교정원장    성광  
감찰원장    일도  
영산불교대학 학장    덕산

춘천 총본산	주지 정대	제주 제2본산	주지 행원
부산본원	주지 도현	대전본원	주지 범행
고성본원	주지 선혜	서울본원	주지 지원
대구본원	주지 일성	일본본원	주지 성도

### 사부대중 일동

■ 현지사 홈페이지 <http://hyonjisa.com>    메일 [hyunjigong@hanmail.net](mailto:hyunjigong@hanmail.net)

- |        |   |        |                                    |          |   |
|--------|---|--------|------------------------------------|----------|---|
| • 춘천본사 |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영서로 4892-23 ☎ 033-243-1787  | • 대전본원 |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 1070 ☎ 042-525-5325  | • 대구본원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5동 중앙대로 29길 20 ☎ 053-654-5557    |
| • 제2본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311 ☎ 064-783-5355  | • 고성본원 |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전항길 7 ☎ 033-681-5515  | • 일본본원   | 일본국 야마구찌현 이와쿠니시 오조쵸 3-3-10 ☎ 81-827-31-1661 |
| • 부산본원 |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 1325 아센타워 ☎ 051-554-5150 | • 서울본원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길 18 ☎ 02-453-5953 | • 영산불교대학 |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 1070 ☎ 042-525-5325           |

